

# 美国의 PC市場

## I. '88 美·PC市場展望

1987년의 미국 PC 업체는 큰 동요를 겪었다. IBM의 신형 PC 「PS-2」의 등장은 PC의 흐름을 바꿀 것인지 주목을 받게 되었다. 対日 반도체 보복조치에 의한 일본제 고급 수준의 Lap Top PC에 대한 사실상의 금수상태이다. 차세대 PC를 위한 OS의 어나운스, Highend Microcomputer분야의 DEC (Digital Equipment), Appolo, Sun Micro Systems 등 메이커들이 PC의 Desk Top레벨에서도 좋은 업적을 거두는 등, PC 업체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IBM을 상대로 한 호환기 최대 메이커인 COMPAQ사나 독자노선의 Apple사의 업적도 호조를 보인 반면 大宇, 三星電子, Bluechip 등 한국, 대만 등의 단순한 Compatible메이커들은 앞으로 자체 개발경험이나 User의 신뢰성 등이 더 한층 문제가 되는 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PC산업의 분류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파

제이다.

미국의 PC시장은 88년에도 계속, IBM, 호환기 메이커, Apple의 삼파전의 혼전으로 격렬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PC수요 그 자체는 구기종이 개체시기 (평균 5년으로 본 경우)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에서 PC가 필수품화되고 있고 신규 수요자의 급증으로 더욱 큰 시장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소형, 포터블형의 수요는 Lap Top컴퓨터 수요를 개화시키고 있어 PC 세그먼트의 일각에 정착해 나갈듯 하다.

반도체 문제와 관련된 対日 PC관련제재는 일본메이커의 현지생산 전환을 초래하였으나 미·일 통상문제와 円高 등이 日系 메이커들에 대해서는 계속 2대 중요과제가 될 것이다.

시장조사회사 Dataquest사에 따르면 87년의 전세계 PC판매대수는 1,720만대(추정)로 이중 IBM, Apple을 필두로 한 미국의 Vendor 비율은 62%였다. 1986년의 58.7%보다 높아졌다.

한편 유럽 벤더의 쉐어는 14.5%에서 10.2%로, 일본은 20.7%에서 19.5%로 각각 감소되었다.

88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87년에는 일본 메이커에 대한 무역제재가 큰 변수가 되었고 88년에는 PS-2의 영향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Dataquest사).

세계 PC시장의 국별 벤더 비율(쉐어)

(단위: %)

		1986	1987
미	국	58.7	62.0
일	본	20.7	19.5
유	럽	14.5	10.2
기	타	6.1	8.3

<자료> Imforcope

IBM, PS-2의 특징은 고속화된 내부 마이크로 채널과 강력해진 그래픽 처리 카드 등 기능면에서만 아니라 IBM의 다른 범용제품 라인업과의 Connectivity(접속성)가 강점이다.

작년 4~10월의 7개월간에 IBM은 백만대의 PS-2를 출하했다고 지난 [COMDEX] (11

월 라스베가스)에서 공식 발표하였다.

IBM은 PS-2의 판매작전으로 Topdown 방식을 채택, 경합 메이커들로부터 상거래를 문란케하는 판매방법이라고 비판도 받긴 했으나 4월 2일 발표 이래 7개월 동안에 백만대 수준을 이룩하므로써 체면 유지는 했다는 것이다. IBM은 80년 PC시장에 참여 이듬해 81년부터 초대 PC의 출하를 시작했는데 IBM이 “사운을 건”PC판매가 백만대에 달하기까지는 2년여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당시와 현재를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PS-2는 1 모델(시리즈)의 백만대 달성 스피드 기록을 남겼음은 사실이다.

## II. '87 美 PC 市場

미국 PC시장의 메이커·기종별 시장 점유율은 87년 9월 판매실적 기준으로 Apple Mackintosh SE가 톱으로 13%, 다음이 IBM PS-2 모델30이 7%, 이어 Apple II GS 5%, IBM PS-2 모델50 5%, Leadingedge 모델D 5%, NEC Powermate 1-2 4%, Apple Mackintosh II 4%로 되어 있다.

이하 3%의 쉐어로는 IBM PS-2 모델 60, Compaq Deskpro 286, 동 포터블Ⅲ, Kpro PC 등이 있다.

이는 Imforcope사의 작년 9월 소매점 판매 조사에 의한 것으로 Apple과 IBM이 선두를 다투고 있으나 Apple의 안정된 강세를 엿볼 수 있다.

IBM은 OS-2 표준판 1.0의 출하를 작년 12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걸고 대형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역세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우기 IBM은 Relational Database 및 Communication의 서포트가 가능한 신OS Version 확장판 1.0을 추가 발표하였다. IBM의 윌리엄 C 로우부사장은 「IBM과 Microsoft 양사는 OS-2 대상 Third Party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메이커들에게 OS-2의 카피와 개발T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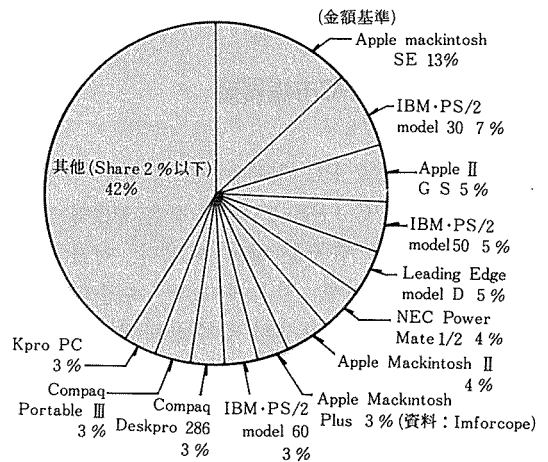
Kit를 제공, 춘계 COMDEX '88(5월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개최하는 것을 포함, 일련의 심포지움을 할 계획이다. 이미 50사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OS-2를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키로 되어있다.

OS-2는 IBM이 독자개발한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가 특징인 PS-2 모델50, 60, 80에서 돌아가는 외에 IBM PC-AT, 동 XT 모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DOS와의 호환성 모드도 포함되어 있다.

통합 데이터 베이스 관리 등 IBM독자의 기능을 지닌 OS-2 출하로 호환기 업체들의 추격을 어렵게 하려는 IBM의 노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들은 88년에도 IBM이 특히 대기업 PC수요를 중심으로 쉐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美PC市場 Share (1987年 9月)



## III. 美 MS-DOS PC市場

시장조사회사 MIRC (Market Intelligence Research Company)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PC업계는 기술변혁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기술면은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나 OS의 개발지연으로 현행 기종들이 제능력을 완전 발휘하지 못하는 2개의 상반된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자의 필두가 IBM이고 후자는 IBM 호환메이커들이다.

MIRC 조사보고서 「1993년까지 지속될 PC 시장의 구조변혁-IBM과 Clone 및 그 시나리오」는 100억弗의 컴퓨터 산업이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한다.

IBM 호환 PC분야에서는 Intel80286 탑재 PC가 1984년에 발표되어 대용량, Multitask 대응책으로 기술혁신을 이룩했으나 필요한 OS가 3년 이상이나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년에는 32비트기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87년 전반기에는 IBM, Apple이 32비트 시장에 참여 Clone메이커들에게 기술변혁 압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경향은 “기술”과 “경쟁”의 두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불확실하고 상호 일정하게 관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Dataquest의 Norm R. Dewit 이사(PC 업계 서비스 담당)에 따르면 「현재 MS-DOS base의 PC는 1,500만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구모델의 태반이 2~3년안에 교체될 전망이다」 덧붙여 「신규 고객(First Timeuser)에 대한 판매증가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IV. IBM PS-2 市場

IBM의 PS-2에 대치하여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메이커는 Apple 이외에 어떤 메이

커들일까?

강력한 개발자원을 지니고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Compaq사나 Zenith사가 유력 메이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Compaq사는 '최신 기종 「Deskpro 386-20」(20MHz)이나 「Portable386」(同)으로 대표되는 기술력으로 정평이 있다. Zenith사는 Laptop Computer의 납품실적으로 톱이다.

한국, 대만 메이커들은 재작년의 추계COM-DEX '86이래 IBM호환기 시장에 대거 참여했으나 실적을 쌓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 메이커들은 미국에서 IBM 호환PC의 본격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이미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東芝, NEC, EPSON 외에 올해부터 松下, 三洋, SHARP 등 각사가 16비트기, 32비트기를 생산할 전망이다. 日系 메이커들은 프린터나 모니터 등 PC주변기에서 강점을 발휘해왔으나 PC 본체로는 미국시장 진출이 뒤늦은 형편이다. 작년에는 100%의 보복관세로 중반 이후 일본제 Lap Top판매는 대상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지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계기로 판매재개를 위해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할 것 같다.

한편 미국에서는 포괄통상법안의 조정이 당초전망보다 대폭 지연되어 해를 넘기고 있으나 올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이 가운데에는 지적소유권이냐 덤핑 해석론 등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너와나의 참여속에 호돌이의 힘찬전진